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⑳ 인드라망 : 조동화의 '나 하나 꽃 피어'



▶한줄 요약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는 하나의 힘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힘

"너희들이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대학 시절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다. 학생 시위가 빈번했던 80년대 대학 캠퍼스엔 전경들이 쏘아 댄 최루 가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독재 정권을 향한 학생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시절이다. 이때 어른들은 너희가 아무리 데모한다고 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체제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라고 훈계했다. 거기에는 시위하다가 다치거나 인생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 또한 담겨 있었다. 자식 또래인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던가.

그런데 1987년 6·10 민주 항쟁을 시작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뽑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을 선택하게 됐다.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어디 그뿐이던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케이팝과 케이푸드를 비롯한 우리의 문화 또한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세상이 변한 것이다.

오늘날 군사독재로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케이민주주의'를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6·25 전쟁, 군사 독재 정권의 악몽 등을 생각하면 참으로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이끈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가 수많은 하나, 즉 '여럿'이 되어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를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인은 꽃 하나 피어 풀밭이 달라지거나,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너와 내가 꽃 피면 풀밭이 꽃밭으로 변하고, 마찬가지로 너와 내가 물들면 산이 온통 활활 타오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전체가 되는 멋진 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언제부턴가 이 짧은 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마치 시의 내용처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여럿이 돼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조동화 시인은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197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낙화암'이라는 시가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가 당선되기도 했다. 〈낙화암〉을 비롯해 〈산성리에서〉, 〈눈 내리는 밤〉, 〈나 하나 꽃 피어〉 등 많은 작품이 있다. 유심작품상과 통영문학상 등 수상 경력도 많다. 2017년에는 경주에 '나 하나 꽃 피어' 시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원래 '나 하나 꽃 피어'는 1995년 발간한 〈처용 형님과 더불어〉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런데 어느 이름 모를 네티즌이 이 시를 카페와 블로그에 올리게 됐다. 이 시를 접한 사람들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지 여기저기 퍼 나르면서 불길처럼 번지게 됐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이다. 2012년 7월에는 어느 대안학교에서 전교생이 이 시를 낭독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시가 더욱 유명해진 사건이 있는데, 2012년 11월 당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 시를 낭독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믿습니다. 함께 꽃피우실 거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어느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출근하면 이 시를 낭독하고 일과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는 노래로도 만들어져 경연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서 선보여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지다 보니 작은 오류들도

하나가 전체 되는 신세계 보인 시
변화, 한 사람 작은 행동서 비롯
하나의 힘 연대할 때 역사 바뀌어

발견됐다. 예컨대 제목이 '나 하나 꽃 되어'로 알려지는가 하면, 시인의 이름이 '조병화'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인은 2013년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집을 내고 이러한 사연을 독자에게 전해 주었다. 직접 감상해 보자.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 하나 물들어 /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 말하지 말아라 /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 결국 온 산이 활활 /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인드라망의 힘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1992년 개봉한 '파워 오브 원(The power of one)'이란 영화가 떠올랐다. 인종 차별이 극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 청년이 일으킨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주었다. 특히 한 사람의 작은 힘이 커다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영화다. 그는 부조리와 모순이 난무하는 폭력적 체제에 맞서 싸우면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 변화란 많은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하지만, 그 시작은 결국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하나의 힘이 강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머금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화엄경〉 60권 전체를 210자로 압축한 법성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가 곧 전부요, 여럿이 곧 하나다(一卽一切多卽一)."

짧으면서도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장이다. 이처럼 일체를 머금고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힘이 한번 작동하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전체를 물들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드라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넓고 큰 그물에 매달린 종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비유다. 촘촘히 엮인 각각의 그물코에 종을 매달아 놓으면, 하나의 종을 쳐도 전체의 종에서 소리가 울린다. 종마다 그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몰고 온다는 나비효과도 있지 않은가. 하나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우리들 삶과 자연의 이치다.

문제는 그 작은 하나가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작동하면 반응을 일으키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80년대 어른들은 어찌 보면 그 하나가 작동하는 힘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나 하나 움직인다고 세상이 변하겠어?'라는 마음이 앞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는 하나의 힘이 작동하면 얼마든지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하나의 꽃이 풀밭을 꽃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단풍 하나 물들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다. 그러니 나 하나 꽃핀다고, 나 하나 물든다고 세상이 변할 수 있겠느냐는 나약한 소리는 거두기로 하자. 나뭇가지 하나는 연약해서 금방 부러트릴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아주 단단해져서 쉽사리 부러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가 또 다른 하나와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그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 그 에너지로 역사는 바뀌는 것이다.

인드라망처럼 엮인 하나의 힘이 작동해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선인들은 3·1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12·3 계엄의 밤에도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힘이 작동해 많은 시민이 여의도로 몰려나왔다. 스마트폰과 SNS라는 인드라망을 통해 종소리가 사방으로 전해져 거리로 나온 것이다. 비록 두렵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장갑차를 가로막자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힘을 보태고 그렇게 모인 에너지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계엄을 막아 냈다.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위대한 역사다. 앞선 글에서 인용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사다.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떼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유채꽃 하나 피면 옆에 있는 꽃들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시인의 지적처럼 네가 꽃 피면 나도 꽃 피고 그렇게 떼로 피기 때문에 풀밭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뀐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드라마 대사처럼 혼자였으면 수없이 꺾이고 좌절했을 인생이다. 함께였기에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 낸 것이다.

이제 '나 하나쯤'에서 '나부터'로 방향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하나의 힘이 작동해서 널리 퍼지면, 무명초(無明草)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풀밭이 지혜와 자비 가득한 정토라는 꽃밭으로 바뀔 수 있다. 불교의 파라다이스 불국정토는 이렇게 세워진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 교리와 현대 과학기술의 만남!
인공지능과 석가의 자비
AI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즉 무아, 연기, 자비 등이 AI 시대의 새로운 철학적,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성찰하였다.
이석주 지음/신국판/408쪽/값 27,000원

한국 현대불교 80년 역사를 한 권에!
한국 현대불교사
광복 직후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 현대불교가 정치, 사회, 문화적 격변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종교로서의 본령을 회복해 왔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김경집 지음/신국판/356쪽/값 23,000원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붓다의 지혜!
사랑은 아프다
온갖 종류의 이별과 상실로 인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챙김 수행법과 불교의 지혜 그리고 따뜻한 조언이 담긴, 실용적이면서 위안을 주는 책이다.
드로 린즐러 지음, 우정석 옮김/국판 변형/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